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08:00 배포 2026. 11. 2.(월) 08:00

2026년 대한민국예술원 영화전 개최
‘AI시대, 영화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 11.5(목)~11.6(금) 2일간 서울영화센터, AI영화상영&포럼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손진책, 이하 예술원)에서는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서울영화센터에서 ‘2026년 대한민국예술원 영화전’을 개최한다.

AI의 영화제작 활용 현황과 창작독창성 구현 가능성을 공론하고, AI영화 상영과 포럼을 통해 국내 AI 영화 수준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중단편 AI 우수작 8편을 선정해 상영하고,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가진다.

배창호 감독의 <젊은 남자>,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중 한 두 쇼트를 AI로 수정해 공개하고, AI가 임권택 없이 임권택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AI에게 임권택 영화를 습득하게 하고 설정을 제공해 대본을 완성하게 한 다음, 임권택 감독 스타일로 한 시퀀스를 연출하도록 시켜 만든 단편도 공개해 함께 그 가능성을 점검해본다.

예술원 담당자는 “이번 영화전이 AI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한국 영화가 나아갈 지혜로운 항로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상영일: 2026. 11.5.(목)~6.(금)
□ 상영장소: 서울영화센터
□ 관람료: 무료
□ 상세정보 및 참가신청 ▶

붙임 1. 세부 프로그램
2. 포스터

담당 부서	예술원 사무국 진흥과	책임자	과장	강은아 (02-3479-7230)
		담당자	주무관	박재홍 (02-3479-72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세부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대한민국예술원_영화전 프로그램&일정 / 서울영화센터 2관

날짜	시간	프로그램	세부	비고
11.5. 목	19:00	상영1	・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 수상작(3편) 49일의 환상여행/ 배짱/ 로이 온 더 로드	3편 122분 상영
11.6. 금	11:00	오프닝	・개막식 & 리셉션 [개막상영] AI연출제작[확인] + AI수정쇼트 [내이름은][젊은남자] 상영	100분
	13:00 - 14:50	상영2 GV	・ 목격자 + 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 수상작(총 5편) 토끼가 이르기를/ 스틸 센딩/ 올리브 나무 아래서/ 뉴먼 ・GV 모더레이터_백승우 감독 게스트_상영작 감독 ※상영작 감독 참석상황에 따라 상영묶음이 변경될 수 있음	5편 70분상영 GV 40분
	15:00 - 17:30	주제 포럼	○ 모더레이터_**김홍준**_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총 150분
			○ A.I. 수정/제작 상영&발표_**백승우** 영화감독 [대한민국예술원_영화전 임권택없이 임권택영화를 만들다] -A.I.시퀀스연출 단편 [확인] (4분) -A.I.활용 수정쇼트 [내이름은], [젊은남자]	20분
			○ 주제발제_**이수영**_모피어스스튜디오 대표 [AI시대, 영화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A.I.김부장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30분
			○ 패널_**박구용**_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발제제목: 처분 불가능한 것의 처분	각 10분
			○ 패널_**박태웅**_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 패널_**이준동**_파인하우스 필름 대표	
			○ 패널_**조광희**_법무법인 원 변호사	
			○ 패널 토의 & 종합 토론	60분

붙임2	포스터


주최 大韓民國藝術院 서울영화센터 SEOUL FILM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콘텐츠진흥원 Gyeonggi Content Agency
AI 시대,
영화는
어떻게
살아
남는가
대한민국예술원_영화전
2026.11.5-6 서울영화센터
11.5.목 19:00 AI 영화 상영 11.6.금 11:00 오프닝 13:00 AI 영화 상영 GV 15:00 주제포럼
김홍준 모더레이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이수영 주제발제
모피어스스튜디오 대표
박구용 패널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태웅 패널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이준동 패널
파인하우스필름 대표
조광희 패널
법무법인 원 변호사